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5만 목표”...전남도, 인프라 강화 나서

나주시와 교통·교육·문화 등 5602억 투입 중점과제 16개 추진
자율주행 셔틀버스·복합혁신센터·어린이테마파크·매성초 신설

전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의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살기 좋은 혁신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빛가람혁신도시 5만 인구 달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3만9577명으로 전년 12월보다 808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대 공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수해 전에 완료됐고, 이주 임직원 수는 7522명으로 당초 목표치를 초과(109%)했지만, 목표로 잡았던 5만 인구 달성에는 애를 먹고 있다.

전남도와 5만 인구 달성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나주시와 머리를 맞대고 중점과제 16개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중점과제 추진에 5602억원이 소

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교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해 ‘이전공공기관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광역 교통망 구축 및 셔틀, 주차시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나주콜버스운행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어플을 통해 이용가능한 콜버스는 혁신도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나주역’간 자율주행 셔틀버스, 혁신도시 공영 주차타워 건립, 혁신도시 버스정보안내기 시스템 개선도 포함시켰다. 광역교통망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이거나 현실화 가능성이 큰 사업들이 많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경전선 철도 건설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고, 강진-나주-광주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오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 여가 인프라 조성도 계속된다. 수영장, 전

시설 등이 들어서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의 경우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어린이도서관, 육아종합지원시설이 포함된 생활SOC복합센터 역시 비슷한 시기 개관이 목표다.

전남도는 여기에 혁신도시내 주요 휴식공간인 빛가람 호수공원 내 여가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테마파크와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등이다. 또 광주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도 중점과제에 포함시켰다.

부영그룹이 방치하고 있는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조성 사업도 고려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 해소에 나서는 한편, 일명 ‘혁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도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자녀를 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 인프라에도 힘을 쓸 방침이다. 2030년을 목표로 매성초등학교 신설과 자율형공립고 운영(매성고),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인프라 구축(빛가람초)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시와 함께 중점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추진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국 지자체 ‘맞손’

서울·경남·충북 등 5곳 팸투어

전남도가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 프로그램 발굴에 나서는 등 공을 쏟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광주·경남, 충남·북 등 5개 지자체와 연계해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시작해 전남·경남·광주·충북·충남 순으로 돌며 단체관광객의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별 대표 관광지를 코스에 반영, 실질적인 마이스 단체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마이스(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첫 글자로,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

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포상관광 등을 유치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이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서울의 루프탑 공간인 ‘버티고’를 비롯해, 서울의 유니크메뉴 등 강변면 마이스 명소를 둘러보고 전남 여수를 찾아 회의·부대시설을 살펴보고 갯고을마을의 갯김치 만들기 체험, 여수 요트투어, 순천만정원 등 전남만의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외 경남 하동야생차박물관 다례 체험,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도슨트투어, 충북 청남대 답사,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방문 등 지자체별 관광자원 체험도 이뤄졌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남을 비롯한 5개 사·도가 협력해 국내외 마이스 시장을 공동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전남의 자연경관과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우수한 음식 자원을 연계한 마이스 상품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7개월 연속 1위

리얼미터, 긍정 59.5%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7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민선 8기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있음에도,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5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59.5%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를 기록, 지난달(58.2%)보다 1.3%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2위에 오른 이철우 경북지사(51.2%·8)보다



8.3%포인트 앞섰고 김동연 경기지사(6위·46.5%)보다 10%포인트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지역 정치권은 비상 계엄과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김 지사의 대외 행보가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

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계 지역민들의 신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같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45.1%로 8위를 기록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2025년 5월 월간 정례 전국 광역단체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4월 27~30일, 5월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다. 응답률은 3.4%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켄텍 총장 조속히 임명하고 학교 정상화” 촉구

김영록 지사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적 요구 부응 중심축 역할 해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켄텍)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오랜기간 공백 상태인 총장을 조속히 임명하고 삭감된 출연금을 복원시키는 등 켄텍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켄텍을 정상화해 ‘K-에너지’ 대전환의 백년지대계로 거듭나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RE100과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중

심 사회로의 전환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약속한 만큼 켄텍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켄텍은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022년 나주에 개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내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과 수준높은 교수진을 영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켄텍은 총장 공백 사태와 출연금 감소로 학사 운영에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는 “지난 정권에서 총장 해임 압박, 표적 감사, 출연금 삭감 등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학교의

성장을 가로막았답”며 “특히 당초 약속했던 연 2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2025년 100억원으로 줄었으며, 이는 과학기술원들과 비교해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켄텍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 복원과 미래 에너지 R&D에 대한 국가적 지원, 에너지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갖춘 총장의 조속한 선임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 인사를 총장 후보에 포함시켰던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시도는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에너지 전문성과 경영 역량, 소통능력을 갖춘 인사가 새 총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애인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

일시 | 2025. 06. 16.(월) 16:30 장소 | 전남도청 9층 정약용실



도-한전MCS 장애인 선수 취업 지원 협약 전남도는 지난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한전MCS주와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30명 내외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성진 한전MCS 대표이사,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과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과 대회 참가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하고 먹깨비 상품권 받자

도, 8월 31일까지 서포터즈 모집

전남도가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전남 사랑애(爰) 서포터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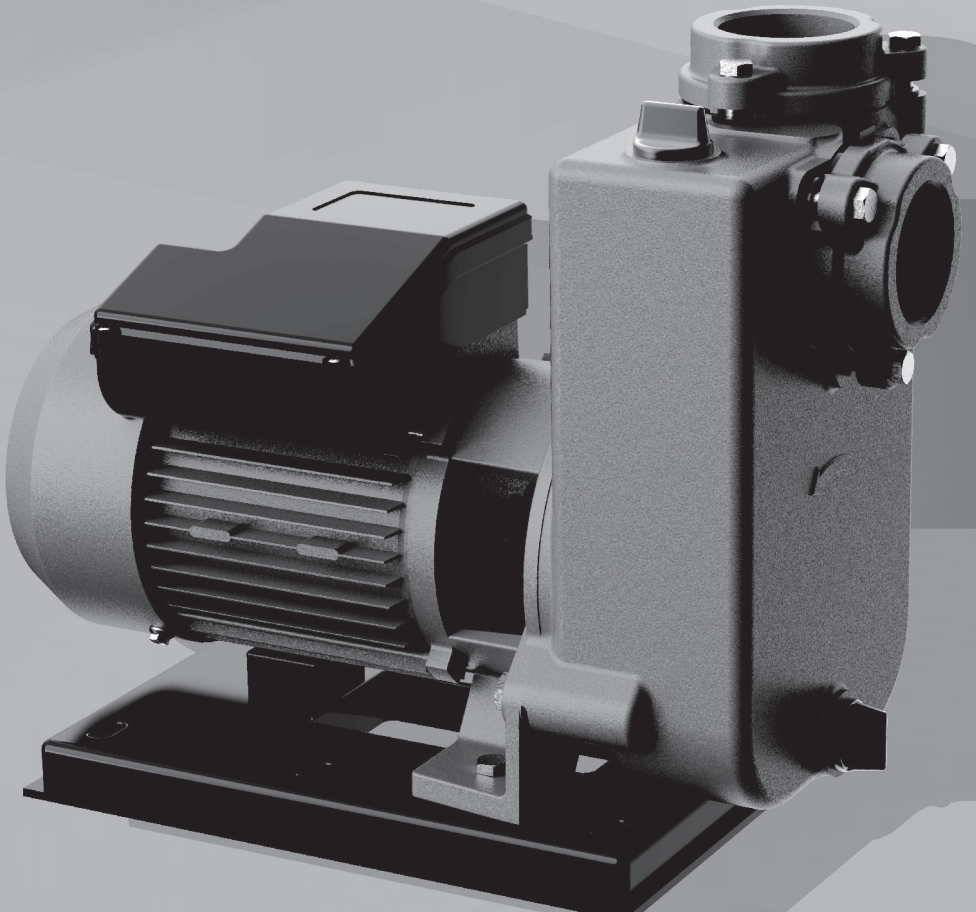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전남도는 17일 “오는 8월 31일까지 전남 사랑애(爰)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1+1’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사랑애 서포터즈 신규 가입자가 가입

추천인으로 기존 서포터즈 혹은 전남도민을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이 함께 응모되며, 총 1081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다 추천인 1명에게는 먹깨비 상품권 100만 원이 지급되며, 2~4등은 추첨으로 통해 각각 10만원, 2만원, 1만원권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첨자는 오는 9월 12일 발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